

연중 제 12 주 일

기도서 P. 374 A해

제 1독서 (예레 20, 10-13절)
제 2독서 (로마 5, 12-15절)
복 음 (마태 10, 2-33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감

편집실 : 전주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대 (전화 ⑤5098)



나는 한심한 사람인가?

김 동 준 신부

우리들 고민과 두려움의 85%는 안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어느 정신분석학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얘기가 된다.

소인(小人)은 허잘 것 없는 일상의 일에 노예처럼 붙잡혀서 분망하고, 대인(大人)은 생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혼신을 기울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일차적으로 생의 위업이 여기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태어나서-사랑하고-죽는 것. 이 3가지는 삶의 기본 되는 순서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진 것이어서 우리에게 문제외이다. 남는 것은 사랑하는 일(넓은 뜻으로-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됨의 실현) 뿐이다. 이 일로써 고민과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늘 땅, 어느 빈 자리에서도 피할 수 없다. - 만인에게 부과된 엄숙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물론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는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예수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전형이며, 모델이며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예수가 되어야 한다. - 소명이다.

예수는 하늘처럼 높은 분이 아니다. 엠마누엘이다. 예수는 울으셨고, 배고프셨고, 노동하셨고, 사랑하셨고 두려워하셨다. -나와 닮았다. 다른 것은, 예수께서는 어떤 일에서 울으셨고, 무엇을 배고파하셨고, 어떤 일에 투쟁하셨으며,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고, 누구만을 두려워하셨는지가 나와 다를 뿐이다. 차이가 많이 난다면 -나는 한심한 사람이다. 뻔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한심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런가 하면 천 세계 7억5천만 가톨릭 신자와 2억5천만 갈릴려자간 형제들 가운데에도 한심한 사람들이 많다. 오늘 복음(마태오 10장26-33)절의 말씀은 못난 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언젠가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이 결정적으로 실현되는 날, 이 위인들에게 주님은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무주 천주교회 주임신부)



촌사람 - 도시사람 - 시내버스 - 총화

하도 답답해서 촌사람이 한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고맙게, 시내버스라는데 있어서 촌사람 부중(府中) 출입이 그런대로 편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시내버스 요금 오름지가 10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또 오르다니... 그것도 6월 12일에 45원짜리가 55원으로 6월 16일에는 다시 75원으로 올랐습니다. (시내 버스를 벗어난 1·2구간의 경우) 결국 45원짜리가 75원이 되었으니 66.66% 올랐습니다. 그러니 당국에서 말하는 "무슨 억척선"이라는 말이 실감있게 들릴리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축을 하느니 버스 토큰을 사 두었더라면 싶었는데...

돈이 없어 시골에 산다고들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도시보다 높지 않으니 좋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이면 파리, 모기네 세상입니다. 시골이라 당국에서 해주는 소독이 없거든요. 전풍기 하나 사오려면, 바쁜 시간에는, 시내버스 승무원들의 눈치부터 살펴야 합니다. 도시 근로자는 팔복종 공단엘 나가는데 50원만 내면 되는데, 시골 근로자는 75원(1·2구간)이나 80원(3·4구간)씩 꼬박 꼬박 내야 합니다. 학생들도 도시아이는 35원울, 시골아이는 55원울 씩니다. 정말로 꼭 그래야 합니까? 시골사람에게도 동포애를 보여 50원씩 받던지, 아니면 시내버스는 시 경계를 벗어나지 말게 해야지, 시외버스 요금보다도 더 비싸게 시내버스 요금을 책정해주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통수단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해줍니다. 자주 만나면 의사소통은 매우 빨라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좋아집니다. 아무리 2차선인 고속화 도로와 단선철도(일부지역은 복선)위판 달리는 우리베라지만, 우리끼리도 시골사람에게는 더 압박을 줘야 속이 풀립니까?

도민 총화는 벽에 써 붙여 놓는다고 되는 일만은 아닐 겁니다.

숲 정 이 산책





오늘은 교황(教皇, POPE)주일

이 수 현 신부(사목국장)

□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단의 대표였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도단에 교회를 맡기셨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에게 특별히 교회를 부탁하셨고, 돌보라고 하셨다. 수많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들은 변천하는 역사 안에서 조금도 변함없이,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보살피며 이끌어 오고 있다.

□ 교황 바오로 6세

현 교황 바오로 6세는 262대 교황이다. 교황 피신 전에는 추기경으로서 이태리 밀라노 대교구장이시었고, 본 이름은 요한 몬테리이다.

□ 교황의 선출

교황은 전 세계 모든 추기경들이 전(前) 교황 서거 직후 **콘클라베**에 모여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황 전용 성당인 성 씨쓰르나 성당에서 뽑는다. 여기에는 입후보자가 따로 없고, 서로 상의 할 수도 없으며, 정견(?) 발표같은 것도 필요없다. 다만 "오소서 성신이여"하며 천주 성령께 기도함으로써 시작하여, 선서를 하고 각자 양심대로 투표를 한다. 이 투표에서 현행 교회법에 의하면, 콘클라베에 참석한 추기경 전체 수의 2/3이상의 표를 얻는 분이 교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출될 교황은 과연 천주 성령의 인도와 은총 안에서 선출된 셈이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교황의 일상생활

역대 교황들은 일단 선출되어 취임하면 성좌(聖座) 즉 교황청을 떠나 여행을 하는 예가 거의 없었는데, 현대에 와서 전 교황 요한 23세와 현 교황 바오로 6세는 로마 시내 교회 각 기관(학교, 병원, 교도소 등)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 특히 바오로 6세는 U.N. 본부에서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을 위한 귀한 연설까지 하신적이 있다. 현대 교황들은 성바오로 사도의 활동성을 재현하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참으로 획기적인 변화이며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황은 대개 씨쓰르나 성당이 있는 바티칸궁에서 모든 공적 사적 생활을 하고 있다. 연중 대축일에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세계 모든 교회와 신자들을 축복해주며 윤리적 신앙적 지도를 해준다. 또한 일주간에 한 두차례 일반 신자를 위한 알현을 베풀며, 지역 교회 지도자나 특별 인사들을 위해서 특별 개인 알현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주일 낮 삼중 시간에는 성 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삼중기도"

를 바치고, 시대적 필요성 있는 간단한 훈시도 곁들이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며 전통이다. 7월초에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 교황은 로마를 떠나 석달가량 가스텔간돌포 별장에서 집무한다.

□ 교황은 세계의 영적 지도자

교황은 세계적 영적 지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황은 방글라데시의 빈곤, 군축문제, 우주공동시장(E.E.C), 공산주의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며 심지어 전 이태리 수상 알도 모로의 신변문제나 한국의 수해문제까지도 걱정하고 관심을 표명한다.

□ 교황은 모든 종들의 중

혹자는 교황이라면 옛날 군주나 황제처럼 드높고 강력한 권력과 권세를 휘흔들 수 있고, 찬란한 개인 생활을 할거라고 연상할지 모르나 이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교황은 스스로를 "모든 종들의 중"이라고 한다 사실 그렇다. 그러므로 전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걱정이 많고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분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이다. 교황은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 있는 분이 다. 이를 위하여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교황은 세계를 위한 희생자이며 봉사자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분명히 교황은 주님과 더불어,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로마 순례자들은 교황 알현을 일생의 가장 큰 소망으로 하고 있다. 확실히 교황은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주고 있다.

□ 교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희생과 봉사로 전 인류를 위하여 사는 교황성하의 괴로움과 걱정을 우리도 같이 나누고, 그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모든 판단과 하시는 일이 조금도 그르침없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註) 콘클라베 추기경들이 교황선거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각자 기도하는 상태이며, 이때 외부와의 접촉은 단절된.

□ 설계·감리·허가수속 □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회소식!!!



신원 건축 연구소

1 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 교육용·가정용·교회용·연주용

당신을 위한

써니 (SUNNY) 전자 을건

※ 교우들에게 특별 예가 봉사

☆ 대리점 : 전주시 고사동 1가 125

세 광 음 악 학 원

□ 대 표 : 염 규 철 (요셉) 2-6111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② 3032 이리 8629

한 동 압 (모이세)

감사의 생활을

유 안드레아

지난달의 일이다. 성모의 밤 준비차 좀 바쁘게 뛰다가 앓차! 어린아이 하나를 치어서 다치게한 일이 문득 이시간에 생각나기에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써본다. 다치게한 순간,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아닌가 하며 더욱 더 걱정에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치료를 마치고 다행히도 작은 상처라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한숨에 쌓인 감사를 주님께 돌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후 몇 일전 이웃 마을에서 자전차에 치어 죽었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을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마음 뿐이었다. 조용히 예수님 앞에, 파티마 성모상 앞에, 연거퍼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기도와 마음 뿐이었다.

계속 되었던 지난날의 가을, 지치고 목말랐던 우리들, 그러나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구역공소 방문때마다 물을 찾으려 야단법석일때, 하느님 사랑이시리까? "우리의 노고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 하시오"하며 위로하던 지난날.

이젠 비가 왔지요. 누구한테 어느분들이 얼마나 감사를 드릴지? 다같이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자신이 행복할때, 만족할때, 편안할때 그때만이 감사 드려야 될까요? 이러한 감사는 인간으로서 많이 모자라는 사람의 태도 일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시간속에 일과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날 까지 하느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계속한다면 하느님 또한 그의 크나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갚아 주실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용안 천주교 전교사>

우리의 작은 그리스도

十 찬미 아기 예수

숲중이에 난 기사를 읽고 느낀점이 있기에, 이렇듯 작은 우리들의 정성이 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모아 보았습니다.

아무썸튼 어린 천사의 가슴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임하셔서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빌며, 끝으로 어린 천사에게 격이지 않는 꿈과 의지를 심어 주길 두손 모아 보냅니다.

전주 전동 천주교회 B. F.

※ B. F. (Bible Fellow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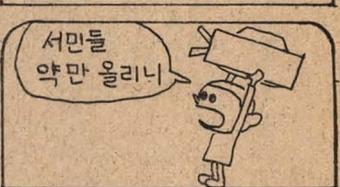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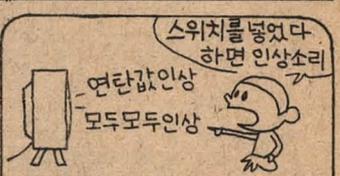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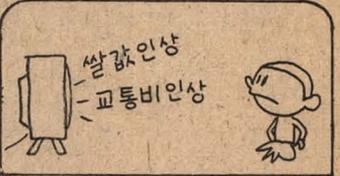
※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전동 천주교회 B. F. 15,345원

중앙 천주교회 청년 성가대 7,500원

중앙 천주교회 익명 교우 7,450원

요십이 (256) 김병오



建設部

시멘트 제품 제조 免許業体

신 흥 공 업 사

파티마 성당 입구

☎ 6016, 2519

李敎成, 김화자(클라라)

◇경운기·분무기 전자동 탈곡기·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계, 대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역 대리점 모집

중앙설비상사

전화 ☎ 5614

전주시 금암동 710~11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각종카텐·응접셋트·의자·철재책상·목재비품·기타일체(판매 및 수선)

대 건 공 업 사

전주시 서노송동 605의 43

(가톨릭센터 앞) 전화 ☎7166

장 기 수(다두)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외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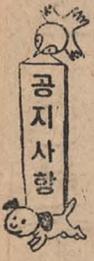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오늘은 교황주일, 교황 성하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주교대리에 사무처장 범석규 신부 주교님의 해의 출장동안의 교구 업무집행을 위해 6월 5일자로 임명, 여름철 건진일정을 가을철로 연기.
2. 사제 서품 (7월 5일<수>) 오전 10시 반, 중앙성당에서, 주례: 황민성 주교) 서품 예정자...강덕행 (요셉, 중앙성당), 김기수(요한, 둔물동성당)
3. 사제 및 부제 인사발령...부임일자 7월 8일, ()안은 전임지.
 - 김순태 신부...군산 둔물동 보좌(길계 보좌), 김준호 신부...교구 사무국(둔물동 보좌)
 - 강덕행 새 신부...덕진보좌, 김기수 새 신부...길계보좌
 - 전중복 부제...용안, 박병준·부자, 박성팔·함열, 김성진·정읍, 이상삼·황등, 권이복·한들
4. 전교사 연수회 (6월 26일<월>-28일<수>), 가톨릭센터)
5. 군옥지구 학생회 연합회 순회미사 (월명동 성당)
6.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 (7월 7일<금>) 오후 8시, 전동성당) ①주제...종교와 인생 ②박도식 신부(철학박사, 대전 신학대학 교수)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득 목현배 보좌 신부 범영숙 사도 신부 이범익 사도 회장 이범익

1. 본당 울뜨레아: 25일 오후 2시(강당)
 - ※ 푸르실리스타는 건잡이 지참하시고 꼭 참석하세요
 2. 영세자 합동교리: 26일부터 30일까지 시간: 오전 10시, 오후 8시(교리실)
 3. 유아세례: 30일(금) 어머니미사 후
 4. 영세식: 1일(토) 오후 7시30분 대부. 대모들은 미리 와서 안내 바랍니다
 5. 신심단체 가입하세요
 6. 30일 애령회 릴레이: 12시 30분(회의실)
- 지난주 봉헌금: 138,842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성 사도 회장 김성익

1. 사도회 릴레이: 금일 저녁미사 후
 2. 형제회 릴레이: 금일 공식미사 후
 3. 재속 청년회 1일 수도생활: 7월2일 오전 10시-17시까지 참가비: 500원(중식비 포함)
 4.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정성드려 분납원칙 실천합니다
 5. 도서 반납요망: 사제관에서 빌려간 책들을 반납해 주세요
- 축! 결혼 신랑-정완섭, 신부-장미혜(스텔라) 일시: 오늘 정오 본당에서
- 지난주 봉헌금: 57,9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제상 사도 회장 유제상

1. 교리시간 안내: 매주(수) 오후 7시30분, 일요일: 오전 11시 (수녀님 지도)
 2. 가정의 귀염둥이 교리반에 많이 보내주세요 교리: 일요일 오후 2시 미사: 3시
 3. 신임 교리교사: 김덕래, 문명철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4. 사도회 확대회의: 다음주
 5. 학생회: 미사후(2층 회의실)
 6. 성모회: 미사후
 7.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28,58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파티마 성모상 가정방문: 신부님의 건강관계로 당분간 쉽니다
 2. 반희장 회의: 내일 26일 오후 8시 빠짐없이 참석 바람
 3. 사도회 릴레이: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1일교장: 오늘-박인식 형제, 다음주일-박홍기 형제
- 지난주 봉헌금: 126,03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보좌 신부 박장준 사도 회장 박장준

1. 애령주일: 미사후 위령기도(특히 6.25때 돌아가신

2. 영령을 위하여) 축! 사제관 및 별관(상가) 신축 기공식: 7월 2일 10시미사 후 있음
 3. 사제관 및 별관(상가) 신축헌금 신입현황
 - 1반: 강규선(62,000), 이석조(15,000), 박태호(30,000), 유복만(7,000), 정선봉(5,000), 최종기(12,500), 최봉수·이춘재(각 3,000)
 - 2반: 김영만·신현주(각 10,000), 한인귀(4,000)
 - 3반: 김옥노(10,000), 김성기·임창영(각 7,000), 김재열(100,000), 서계남(8,000)
 4. 신축헌금 미신입자는 금주 안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44,495원

(순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사도 회장 이강노

1. 오늘은 교황주일 정성드려 기도와 헌금을 바칩시다
 2. 요안회 릴레이: 오늘 공식미사 후(유치원 교실)
 3. 사도회 릴레이: 7월 2일 공식미사 후 임원, 구역장, 반장 참석 바람
 4. 본당 신부님(바로로) 영명축일: 오늘 공식미사 후, 축하식 불집양면으로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1,01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이윤유 보좌 신부 사도 회장 유유식

1. 예수 성심의 밤 예수 성심 봉헌미사(가정 봉헌) 예수 성심상 앞에서 내일(월) 저녁 8시
 2.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 30분
 3. 이순성 배드로 신부님 영명 축일: 6월29일 저녁미사
 4. 사제 성소자 모임: 신청 30일까지(납중·교생)
 5. 젊은이 성서 연구모임: 참석자 명단(3번)
 6. 본당 여 사무원 임 안젤라양 결혼 (오늘 11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145,140원

(파티마)

전화 ③7249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사도 회장 채수현

1. 예비자 교리안내: 주일 공식미사 후 금요일: 오후 7시 30분(지성인)
 2. 성가연습: 토요일 오후 5시
 3. 대제사: 유근창, 최완필, 장강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 비품 마련해 주신분: 조아네스(주수상)10,000원, 이현재(제대보)20,000원, 이순례50,000원, 이안나(성작)30,000원, 김화자(제병)24,000원, 익명100,000, 익명 50,000원
 5. 교무금 납입자: 양병도 1,000원, 유중소 12,000원, 윤아지 600원, 박영경 6,000원, 장영희 1,000원, 박봉수 1,000원, 황희상 37,000원, 윤영섭 50,000원, 전준남 3,000원, 최정순 800원, 채혜선 3,000원, 이계민 10,000원, 김중순 1,000원, 박순주 500원
 6. 교무금 재신입자: 사도회 사무실로 마감 제출 바람
- 지난주 봉헌금: 26,410원